

제 목	국 문	매스미디어와 보건교육-TV 건강정보프로그램의 내용분석-		
	영 문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Television : -A Content Analysi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우 석 균		
	영 문	Seok-Kyun Woo <i>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Medical College, Hallym University</i>		
분 야	의료관리	발 표 자	우석균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0월			
<p>1. 연구 목적</p> <p>질병양상이 과거와 달리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질병들의 원인으로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의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활양식의 형성과 변화와 관련한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가 다루는 건강관련정보의 내용, 그 영향력의 크기나 행사방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적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주 건강정보원인 TV에서 전달하는 건강정보와 관련한 예방의학 및 보건학 분야의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p> <p>매스미디어, 특히 TV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순기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TV에서 전달되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그 주제 및 형식의 적절성을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검증하고 셋째 전달되는 건강정보의 의학적 적절성을 평가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먼저 건강관련프로그램 방영 현황과약을 위해 1990-94년의 5년간의 TV 편성표를 기초로 건강관련프로그램 방영현황을 분석하였다.</p> <p>다음으로 1995년 1월부터 2월까지의 4주간 5개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되는 정기적 비보도, 비드라마 건강관련프로그램을 일간신문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TV 관련잡지를 활용하여 파악, 8개 건강정보프로그램을 녹화하였다.</p> <p>대상 프로그램의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행해졌다. 대상 프로그램의 전체적 주제와 형식, 출연 전문가들 및 일부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가 행하였고 대상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는 개별 정보의 의학적 적절성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문해 항목을 추출하여 전문가 패널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별 정보의 적절성 검증은 미리 토의를 거쳐 마련된 평가지침에 따라 연구자를 포함한 가정의 3인이 판정하였고 평가가 상이할 경우 토의를 거쳐 합의를 피하였다. 최종적으로는 3인 중 2인 이상의 합의를 거쳐 판정하였다. 3인 중 1인이라도 판단 근거가 희박하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정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종합적인 분석을 행하였다.</p>				

3. 연구결과

5년간 TV 편성표를 통한 분석 결과 건강정보프로그램은 교육방송을 제외하고는 새벽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의 교육토크형태로 방영되거나 오전 7-10시 시간대에 정보종합매거진 형태로 방영되었고 오후 프라임타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최근 정기적 건강정보프로그램의 증가 추세가 관찰되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1995년 1-2월의 4주간 중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총 82개였다. 이는 동기간 정규 방송시간의 1.8%, 교양방송시간의 7.5%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특정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었고(49.5%), 다음으로 예방 및 건강증진(24.6%), 병태생리(11.5%), 기타(11.5%), 재활(1.6%) 순이었다. 질병현상의 사회적 측면이나 보건의료제도를 주로 다룬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질병현상의 사회적 원인과 대책이 언급된 프로그램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출연 보건의료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구성은 남성이 86.3%, 여성이 16.8%였고, 직종별 분포는 의사(60.5%, 치과 의사 포함), 한의사(16.0%), 민속의료인(8.9%), 관련학과 교수(7.4%), 약사(2.5%), 간호사(1.2%) 순이었다. 의사의 경우 소속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85.4%였고 병원은 없었으며 개인의원이 14.6%였다. 의사는 출연진 모두가 전문의였으며 이중 34.4%가 세부전문의를 표방하였다. 의사와 한의사의 소속기관 중 네개의 특정대학병원이 전체의 71.7%를 차지하였다.

개별정보의 적절성 분석결과, 각 프로그램당 부적절한 정보는 개별 프로그램당 평균 7.8개였다. 이 중 68.4%가 유해정보라고 판정되었다. 전체 프로그램 중 86.9%가 부적절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었고 6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57.7%였다. 부적절한 정보는 근거 없거나 부정확한 정보(73.1%), 오해가 가능한 정보(11.6%),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5.1%),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5.1%)의 순이었다.

4. 고찰

현재 TV에서 방영되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은 건강정보전달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방송시간대나 방송시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현대의 질병양상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증진이나 예방등이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재활영역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연보건의료인 구성에 있어 직종간 불균등이 심하며 종합병원의 임상의학 의료진의 의존도가 높다.

현재 방영되는 TV 건강정보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생의학적 치료의학 중심의 의료관에 따라 선택된 건강정보 전달을 주로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속의료적 건강정보를 매우 높은 비중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전달하는 건강정보 중 많은 부분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었으나 건강증진이나 예방보다는 특정질병의 치료에 치우친 정보이거나 또는 보건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국민건강에 유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첫째 TV를 통해 전달되는 건강정보에 대한 보건의료인들의 모니터와 통제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언론인의 자체적인 노력과 셋째 정부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